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배포일시	2017. 11. 21.(화) 총 3매(본문)	
담당 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투자유치지원과	담당 자	• 과장 안광열, 서기관 이용직, 사무관 박윤희 ☎ (044) 201 - 4499	
보 도 일 시	2017년 11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2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한전 연관기업 42개사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투자유치 협약 체결 통해 2,275억 원 투자·일자리 822개 창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2일(수), 부산 벅스코(Bexco)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 하에 42개사의 한전 연관기업과 투자유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박병호), 전라남도(정무부지사 우기종), 나주시(시장 강인규),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한화 큐셀코리아 등 42개의 한전 연관기업이 함께했다.
- 투자유치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전남(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화 큐셀코리아(서울 소재) 등 42개 기업은 '18년 말까지 에너지 밸리*에 전력 소프트웨어(S/W) 개발(16개)과 전력설비 제조업(26개)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 한전이 지자체와 함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에 조성하는 에너지 신사업의 생태계 구축 산업

- 한전은 이들 기업에게 금융 및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고, 정부 및 지자체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지원, 세제혜택 부여 및 재정 지원 등을 하게 된다.
 - 이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42개 한전 연관 기업이 총 2,275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일자리 822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나주)로 이전('14년 12월)한 한국전력은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신산업에 특화된 산업클러스터인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이번 42개 기업을 포함하여 한전은 지금까지 280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액도 1조 원을 돌파(1조 1,839억원)와 함께 7,6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어 낙후된 지역경제 희생과 신성장 동력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현황 >

구 분	기업수	투자금액(억원)	일자리 창출(명)
기 존	238	9,564	6,808
추 가	42	2,275	822
누 계	280	11,839	7,630

- 한전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지역인재 채용 및 확대, 지역 물품 구매 및 용역 확대, 한전(본사) 1처 1촌 자매결연,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학금 지급, 문화공연 개최 등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 2」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한전 연관기업 유치 및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를 다른 혁신도시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연관기업 유치 및 지역공헌 사업의 추진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투자협약 체결에 이어, 혁신도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전·투자 사례 소개 및 상담을 지원하는 「2017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된다.
- 올해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해외 사례(기업과 도시발전, 미국 시애틀 사례) 소개, 이전기업 우수 사례(3개 기업) 발표, 혁신도시별 및 이전 공공기관(한전, 세라믹기술원)의 투자 상담 부스 설치·운영 등 투자유치 활동도 이어질 예정이므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투자 및 이전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 투자자의 관심과 많은 참석이 예상된다.

- 붙임: 1.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서 1부.
 2.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기업체 현황(42개사) 1부. 끝.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투자유치지원과 박윤희 사무관(☎ 044-201-44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